

5·18 29주년 '반쪽 행사' 되나

옛 도청별관 철거 싸고 단체간 갈등... 행사위원장 추천 못해

광주인권상·평화캠프도 차질 우려

5·18 민중항쟁 29주년 기념행사가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할 위기를 맞았다. 5·18 기념행사의 핵심주체인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이하 유족회)와 부상자회 등 5월 관련단체들이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에 반대해 농성을 계속하면서 행사준비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18 민중항쟁 29주년 기념행사준비위원회'(이하 29주년 행사위)는 최근 5월 관련단체·교육·여성·학생·진보연대·농민·문화·환경·노동·종교단체 등 각계 대표 1명씩을 공동행사위원장으로 배정, 각계의 추천을 받

아 10명을 선정했다. 그러나 유족회와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5월 관련단체 몫으로 배정된 1석의 공동행사위원장은 공식 상대. 지난달 17일 5월 관련단체 중 구속부상자회가 별관철거에 합의, 농성을 풀고 철수했지만 유족회와 부상자회 회원들은 철거에 반대해 농성을 계속하면서 단체 간 갈등이 커져 위원장 추천 등을 위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주년 행사위"는 지난해 10월부터 행사를 준비해왔지만 5월 관련단체는 '옛 도청 별관 철거문제'에 인력

을 집중하면서 행사준비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관련단체 주관으로 진행될 추모제·부활제·화회 대회 등 기념행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지난 18일 유족회와 부상자회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양측이 법적 공방까지 벌이게 돼 이들의 행사준비 참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 '29주년 행사위'는 내년 30주년 기념행사에 대비, 광주시로부터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로 했으나 5월 관련단체 간의 갈등으로 행사 계획 수립 등이 늦어지면서 예산 확보가 지연돼 30주년 행사 준비마져 걸리고 있다.

이와 함께 옛 도청 별관철거 등의 문제로 유족회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5·18 기념재단도 3개월 넘게 이사장을 선출하지 못하면서 광주 인권상과 국제평화캠프 등 행사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사장 선출이 늦어지면서 행사준비위원장과 심사위원 등을 추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18 민중항쟁 29주년 기념행사위원회' 관계자는 "옛 도청 별관문제가 해결돼야 29주년 기념행사도 별 없이 진행될 텐데, 아직까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 큰 걱정"이라며 "공식 행사인 만큼 내부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행사준비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뺑소니 잡기 위한 음주운전 면허정지 대상 안돼"

총리행정심판위

음주상태에서 뺑소니 운전자를 쫓기 위해 운전한 경우는 면허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음주 교통사고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자를 잡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행정위에 따르면 서모(31)씨는 지난해 11월 9일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도로에서 정모(여·35)씨가 몰고가던 승용차가 자신의 1t 화물트럭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했다.

당시 정씨의 차량은 서씨의 트럭을 들이받은 뒤 국도 중앙선을 넘어 달아나다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승용차와 길거리의 노점상을 연속적으로 들이받은 뒤에도 계속 도주했다.

서씨는 사고 차량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고 판단, 즉

시 길가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트럭에 시동을 건 뒤 70여m를 추격했다. 이후 서씨는 정씨의 차량이 만연리 국민은행 앞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멈춰서자 재빨리 정씨의 차 옆쇠를 빼앗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8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정씨를 붙잡은 서씨 역시 면허정지 기준치를 초과한 0.058%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확인돼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서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위는 "서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그의 행위는 타인의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행위이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장롱 깔려 여아 숨진 사고

어린이집 원장·교사 입건

진도경찰은 지난 9일 어린이집에서 두 살배기 여아가 숨진 것과 관련, 원장 장모(48)씨와 보육교사 강모(여·41)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불장으로 사용하던 장롱을 흔들리는 채로 내버려뒀다가 원생 김모(2)양이 이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육군 중령 "담배 사오라" 난동

광주 풍암동 음식점서

출동한 경찰관 폭행도

현직 모 부대 대대장이 심야에 술에 취한 채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해 탈영을 빚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육군 모 부대 소속 김모(42) 중령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한 뒤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중령은 지난 28일 밤 11시에 광주시 서구 풍암동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15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육군 모 부대 대대장인 김 중령은 이날 친·인척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켰으나 거절당하자 화가나 술병을 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중령은 특히 금호지구대 정문 앞길에서 자신을 연행한 금호지구대 소속 한 경찰관의 안경을 파손하고 얼굴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광주 주택가 영아 버려져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갓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영아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새벽 5시30분께 광주시 동구 산수동의 한 주택 1층 대문 앞에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알몸 상태로 버려져 있는 것을 이 집 2층에 세들어 사는 이모(17)양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자아이는 광주 영아일시보호소로 옮겨진 뒤 조선대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광주지역 병원과 조산소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호적 고친 공무원 정년 연장 가능" 대법원

공무원이 호적을 정정해 출생일을 변경했다면 정년도 바뀐 생년월일에 맞춰 연장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재판장 김능환 대법관)는 29일 광주지법 4급 공무원 정모(60)씨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 법상 정년은 공무원의 정년퇴직 시 구비서류인 기본증명서에 적힌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정정된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7년 9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자신의 출생일을 '1948년 0월 0일'에서 '1949년 0월 0일'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은 뒤 광주시에 공무원인사기록상 생년월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정년퇴직일은 생물학적인 연령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스님·수녀님 "재활용품 사세요" 종교 화합과 상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28일 서구 삼우지구 무각사에서 열린 재활용 장터 '보물섬'에서 장터에 참가한 스님과 수녀들이 자신이 사용했던 물건을 시민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다. '보물섬'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개설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상습 성폭행범 항소심서 징역 5년 추가

광주고법 20년 중형 선고

부녀자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과 강도행각을 벌여온 30대에 대해 법원이 15년형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

한 법률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여수시 들산읍 우두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선고 형량에 5년을 더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매우 커 장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

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강간죄로 2007년 말까지 7년간을 복역했으며, 출소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16일부터 여수지역에서 여성 6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금품을 빼앗아오다 불잡혀 1심에서 징역 15년과 '전자팔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STPIE
국제교류전문인력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Specialist Training Project for International Exchange

이 프로그램은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수강생은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수강 대상
1.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자
2. 영어听说 능력 우수자
3. 해외 근무에 동의할 수 있는 자

수강 혜택
1. 해외 근무 기회
2. 기업 취업 기회
3. 해외 근무 중 생활비 지원
4. 해외 근무 중 의료비 지원
5. 해외 근무 중 보험료 지원
6. 해외 근무 중 세금 지원
7. 해외 근무 중 주거비 지원
8. 해외 근무 중 교통비 지원
9. 해외 근무 중 통신비 지원
10. 해외 근무 중 여가비 지원

수강 신청
1. 신청서 작성
2. 면접
3. 합격자 발표

문의처
STPIE 사무국
전화: 02-1234-5678
팩스: 02-1234-5679
이메일: stpie@stpie.com

국비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100% 합격 보장!
계좌제/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

가족사랑 간호전문학원 입학안내

주요특징
1. 100% 합격 보장
2. 100% 취업 보장
3. 100% 장학금 지급
4. 100% 생활비 지원
5. 100% 의료비 지원
6. 100% 보험료 지원
7. 100% 세금 지원
8. 100% 주거비 지원
9. 100% 교통비 지원
10. 100% 통신비 지원
11. 100% 여가비 지원

가족사랑 간호전문학원
945-7125~7